



우리 영화의 역사를 찾아서

《한국영화발달사》 펴낸 유현목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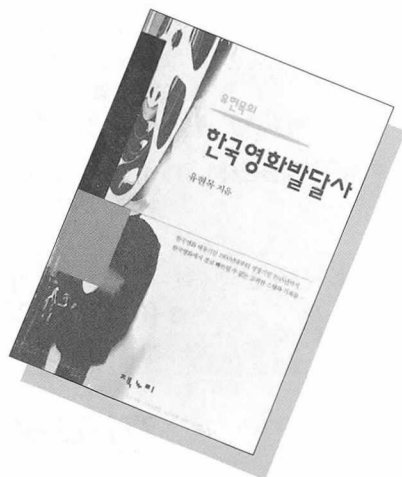
영화계에 들어가기로 작심하고 배우 시험을 보았다. 필기시험에 만점을 받았으나 외모 때문에 배우로 기용되지 못하고 조감독이 되었다.

“결국은 내가 추구한 길, 그때까지 돌아온 먼 길이 영화감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영화는 모든 장르를 망라하는 종합예술이지요.”

영화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여 계속 진보한다. 후각영화, 촉각영화처럼 인간의 오감을 충족시키는 영상물로 변화해 갈 전망이다.

“대기업의 투자도 근래 많이 늘었으나 흥행성, 오락성 높은 영화가 많이졌습니다. 하지만 앞날은 어둡지만은 않아요. 양이 많으면 질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학생과 작가주의 감독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쓰러지지 말아야지요.”

유감독은 스웨덴의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을 좋아한다. 그가 젊었을 때는 사회문제를, 나이 들어서는 인생과 영혼, 구원과 종교문제를 천착하는 것에 공감이 간다. 이제 그의 영화인생은 50여년째다. 한국영화의 산 증인이라는 말이 손색없다. 유감독의 희망은 힘 닿는 한 고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 젊은 영화학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다. — 마정미 기자



영화감독이자 동국대 명예교수인 유현목(72세)씨가 펴낸 《한국영화발달사》(책누리)는 ‘한국의 영화’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 보여준다.

“1919년 김도산의 <의리적 구토>라는 연쇄활동사진극이 만들어진 이후, 나운규와 이환규같은 당대 거장들의 활동과 한국 영화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한국영화사는 영화 자체의 발달사라기보다는 식민시대에 반일과 저항운동으로서의 역사지요.”

해방 전까지의 한국영화와 영화계 역사를 그린 이 책은 10년전 출간된 내용을 일일이 고증하고 보완하여 다시 펴낸 것. 찾기 어려운 당시 영화 스틸과 영화 줄거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도 충실히 담았다. 특히 작품 속에 나타난 감독의 작가정신을 통해 한국영화를 이끌어온 숨은 힘의 발견에 주목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근대영화에서는 유현목 감독 자신이 한국영화를 이끌어온 힘이다. 47년 조감독으로 영화계에 뛰어들 그는 처녀작 <교차로>를 시작으로 총 43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오발탄> <영여인간> <장마> 등은 명작으로 꼽힌다.

어릴 때 분해와 조립, 글라이더 모형만들기를 즐겼던 그는 발명왕 에디슨이 되고 싶었다. 스케치북을 들고 여행하기를 즐겨 미술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한때는 ‘트로이메라이’에 반해서 바이올린을 배웠고, 조택원씨의 무용에 반해서 무용가도 소망했다. 조각과 건축에도 푹 빠졌으며, 대학시절에는 희곡 공부도 했다. 그러다가 피에르 슈나르 감독이 만든 영화 <죄와 벌>을 본 후 영화에 매료되었다. 이 영화를 14번이나 보고



확장된 은유와 삶의 단면

《대머리와의 사랑》 펴낸 성미정씨

《대머리와의 사랑》(세계사)은 성미정(30) 시인의 첫번째 시집. 94년 《현대시학》에 <가둔다> 외 다섯편의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오고 3년 만에 펴내는 처녀시집이다. 성시인의 데뷔시기나 첫시집의 간행시기는 동년배 시인들의 그것에 비해 좀 늦은 편. 문학의 세례를 받고, 시창작에 정진한 노력에 견줄 때는 더욱 그렇다.

“문학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한때는 한방에 3루타 정도는 날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지요.”

성시인은 독특한 문법을 구사한다. 음소를 대비시킨 시어를 통해 고정된 의미를 환기하는 작업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도끼/토키’ ‘현실/현실’ ‘타락(천사)/타락/타락’ 등이다.

“특별한 장치는 아닙니다. 다른 시인들도 많은 쓰는 기법이지요. ‘현실’과 ‘현실’의 대비는 시를 쓸 때의 내 현실적 상황이 현실처럼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집에는 연작시가 많다. ‘동화’ ‘쿨월드’ ‘야구’를 소재로 쓴 시가 많지만, 여기서 동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야구에 얽힌 재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것들은 성시인이 시를 빚는 재료에 불과한 까닭이다. 동화연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를 끌어들이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시인 자신이 창작한 동화를 모티브로 삼기도 한다(<상자> <가방엄마> 등).

시인에게 야구장은 삶 또는 현실, 아니면 시쓰기를 뜻한다. 야구를 알레고리 삼아 현실을 투사하는 솜씨가 만만찮다.

“그런 놈들은 야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오히려 물을 지키는 사람을 향해 물을 어긴다고 손가락질한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물이다 물을 지키는 사람은 물을 지키는 만큼 손가락질 당한다(<야구에 대한 세가지 슬픔>에서)”

또한 야구계를 빌려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문단의 병폐를 꼬집는다. 그녀가 문단의 외곽에 있는 아웃사이더라 가능한 일인데,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신념도 작용한 듯싶다. 최근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도 일과성으로 그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시집에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시인은 현대는 시가 노래로 불리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한다.

독자들이 이 시집을 읽고, 시가 아름다운 것만도 아니고 복잡한 내용의 이런 시도 있구나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성미정 시인은, 어린이들이 쓴 글을 눈이 시리도록 읽는 일이 중요한 일과다. 그녀는 글쓰기 개인지도 교사다. — 최성일 기자





평범한 아버지의 한 세월

《어느 아버지의 일기》 펴낸 주동설씨

누구의 것이든, 일기는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어느 아버지의 일기》(프레스빌)가 흥미를 끄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다. 예순의 아버지에게도 여린 감성의 사춘기와 가슴 설레는 첫사랑이 있었고, 질풍노도의 청년기가 있었다는 당연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주동설씨(60, 하나선박 대표)는 전쟁이 끝난 후인 54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94년은 일기를 쓴 지 40년째인 해여서 정리를 해 보니, 일기장만 43권이 되더군요."

문방구에서 팔던 '하기방학 일기장', 잡지 《학원》의 부록으로 받은 '학원일기', 공군기술교육단에서 받은 노트를 일기장으로 쓴 '수양록' 등, 그 안에 담긴 사연만큼이나 일기장도 각양각색이다.

"컴퓨터에 다시 옮겼을 뿐, 내용은 한 글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거나 생각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그 나이의 나를 존중해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연애편은 아내가 신경 쓰여 빨까말까 많이 망설였다. 고등학교 시절 전화통화로 애뜻한 감정을 키웠던 연자, 몇 번 만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버려 두고두고 생각났던 옥, 한번 결혼에 실패한 것 때문에 데이트를 그만두었던 방송국 아나운서 영숙... 정리를 해 놓고 아내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다. 아내는 오히려 아주 재미있다고 격려했다.

"아내는 제 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추억을 반추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에게 젊은 시절과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듯이 제게도 그런 시절과 사연이 있었답니다. 하는 미소였거든요"

이 기억들 사이에는 강박했던 현대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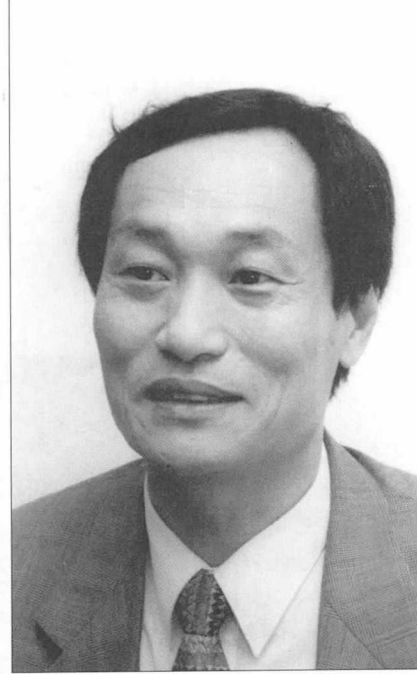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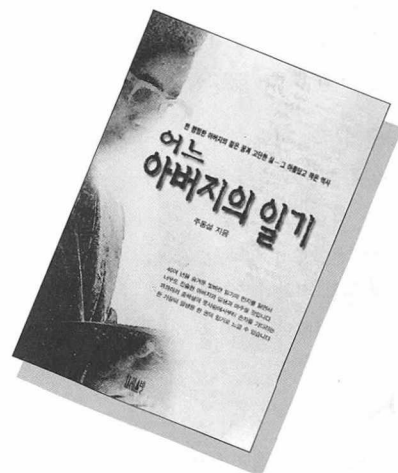
스며 있다. 고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냈던 이강석 가족의 참혹한 최후는 아직도 놀라움으로 가슴 한켠에 남아 있다. 아버지 주요한씨가 5·16 쿠데타 직후 강제연행되었을 때, 그는 "회의가 분노와 증오로 바뀌기 시작한다. 무엇을 죄목삼아 한 사람의 인권을 그리 쉽게 유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일기에 썼다.

"스무살을 전후한 시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군대생활, 그리고 사회 초년시절, 그는 지금의 젊은이와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했다. 회사에 대해 실망하고, 앞날을 생각하느라 밤을 지새고, 결혼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다 직장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했다. 갓난 딸이 모기에 물릴까봐 밤새도록 모기를 잡았던 기억이 새롭는데, 그 딸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대학과 군대생활, 그리고 사회 초년시절, 그는 지금의 젊은이와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했다. 회사에 대해 실망하고, 앞날을 생각하느라 밤을 지새고, 결혼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다 직장에 사표를 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을 했다. 갓난 딸이 모기에 물릴까봐 밤새도록 모기를 잡았던 기억이 새롭는데, 그 딸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요즘 젊은이들이 이 책을 보고 아버지 세대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게 됐으면 합니다." — 이현주 기자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위하여

《새로운 모색》 펴낸 이원섭씨

"짧은 글은 늘상 써왔기에 조금 길게 썼다는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감회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하루가 지나면 '구문'이 태버리는 신문기사와는 달리 책은 꽤 오랫동안 '재책'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없지 않았지요."

언론인 생활 20여년만에 첫번째 책을 펴낸 이원섭씨(48,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소감이다.

《새로운 모색》(한겨레신문사)은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정립을 주제로 한다. 모두 4부로 이뤄진 이 책의 1부 '남북문제를 보는 눈'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에 속한다. 6·25전쟁과 그 이후의 반공교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냉전적 시각이 국민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이러한 냉전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2부와 3부는 김영삼 정권과 역대 정권들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폈고, 4부 '통일과 언론'은 남북문제를 다룬 언론의 보도태도를 집중적으로 짚고 있다.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따라 형성된 편견이 얼마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밝히고 싶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최근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남북 관련 뉴스의 진상을 접할 수 있다. 이를테면, 95년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공기 계양사건'이나 '삼선 비너스호 억류사건' 등에 대한 전말의 공개를 통해 바른 판단을 이끈다.

저자는 우리 언론이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으로 본다. 그런 까닭에 민감한

사안들을 보도할 때 앞뒤가 뒤바뀌고, 본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한다. 북한의 일면만 보고 전체를 파악한 양 거침없는 기자들의 북한방문기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는 신중함과,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부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균형감각이 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원섭씨는 75년 《조선일보》에 들어가 사회부와 정치부 기자로 일하던 중,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실보도를 위한 제작거부에 참여한 것이 빌미가 되어 강제로 쫓겨났다. 호구지책으로 뛰어난 가전제품 회사에서 경인지역의 판매지점장을 지낼 정도로 능력을 발휘했으나, 《전자신문》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취재부장을 맡았다. 88년 국민주모금에 의한 《한겨레신문》의 창간준비작업에 참여, 대변인을 맡아 활약하기도 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기자로서 '언론고시'를 통과한 후배기자들에게 주는 당부 한마디. "동포적인 입장에서 국민의식을 깨우치고, 전체 사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최성일 기자

